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

금융은 통통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

보도	2024.6.5.(수) 조간	배포	2024.6.4. (화)		
담당부서	민생침해대응총괄국 불법사금융대응2팀	책임자	팀 장	정윤미	(02-3145-8285)
		담당자	조사역	김태기	(02-3145-8523)

부동산 펀드로 원금보장 ·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현혹하는 유사수신업체를 주의하세요!

■ 소비자경보 2024 - 21호

등급	주의	경고	위험
대상	금융소비자 일반		

소비자경보 내용

- 최근 **부동산 펀드 투자**로 **원금보장** 및 **고수익**이 가능하다는, 투자금을 모집하는 **유사수신 사기**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
 - 불법업자는 “**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(P2P업체)**”를 사칭하며 “**아비트리지 거래**”, “**부동산 펀드**”로 **고수익***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습니다.

* (아비트리지 거래) 8시간 마다 0.5%의 수익률, (부동산 펀드) 3개월 36% 수익률 제시
- 특히, 이들은 유튜브·블로그 등에서 **영상** 및 **광고 글**을 다량으로 게시하여 투자자 스스로 **불법업체 홈페이지**를 **방문**해 투자하도록 현혹하고 있습니다.

※ 이들은 투자자 신뢰를 얻기 위해 **실제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공시자료** 및 **투자후기**나, **유명인 사진**·**다른 회사의 사진** 등을 도용
- 투자자 대부분 만기(6개월)가 도래하지 않아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나, 동 업체는 **불법업자로서 만기 후 원금 반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**이 높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<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>

- ① **원금 · 고수익을 보장**하며 투자금을 모집한다면 **유사수신을 의심**하시고 **신속하게 신고**하세요!
- ② **온라인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고수익**을 낼 수 있다고 접근하는 업체는 **불법 업체**이므로 이에 **절대 응하지 마세요!**
- ③ **유명인을 사칭한 광고**나 **일반인의 투자후기 허위 영상**에 **속지 마세요!**
- ④ **정식 금융회사**로 설명하더라도 **제도권 금융회사 여부**를 꼭 **확인**하세요!

4

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원본보장 약정

□ 불법업자는 약관상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본이 보장된다며, 약정 기간은 최소 6개월로 중도해지시 원금의 90%를 공제*한다고 안내

* 중도해지를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실제로 원금의 10%를 환급해 주기도 함

○ 아직 약정 만기(6개월)가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투자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음



특히, **동 업자**는 대면·유선* 상담을 거부하며, **홈페이지 쪽지함** 또는 **카카오톡** 등으로만 접촉하는 **불법업자**로서 **만기 후에도 원금반환에 응하지 않고 참척할 가능성이 높음**

* 070 전화가 홈페이지상 표시되어 있으나, 통화량이 많으며 연결이 지연된다는 녹음 음성만 송출

[원금보장 약정]

신탁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중도해지 수수료 90% 원금 동

만기유지시 원금보장 약정

신탁 계약(신탁계약)은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운용하는 실적배당상품이므로 ○○펀딩 에서 별도 원본 보전을 약속드리며, 예금자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.

제3조(신탁기간)
① 신탁 기간은 첫 입금 기준일로부터 최소 6개월이며, 신탁 기간 내에 출금을 원할 시 이익금을 제외한 신탁 금액의 최대 10%까지 출금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3조에서 정한 신탁기간 종료 전에 신탁을 해 을 중 **중도해지시 원금 90% 공제** (지) 신청서에 의하여 을에게 중도해지신청을 해야 한다

[홈페이지 쪽지함 화면]

쪽지함(MEMO)

홈페이지 쪽지 기능 등 **비대면**으로만 응대

고객지원팀 | 보낸시간 : 2024-05-10 13:07:36

안녕하세요.

국내·외국인 투자를 선도하는 부동산 투 **원금의 10%만 환급**

중도 해지시 수수료는 90%입니다. **원금의 10%만 환급**

○환입금의 경우 이미 원금의 10%가 출금된 상태이며, 나머지 금액은 중도해지할 경우 수수료로 차감되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.

당사에도 규정이 있으며 신탁계약 180일이 종료된 후에 원금을 포함한 수익금 전액 출금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

○환입은 언제나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, 고객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감동이 실현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

II. 주요 피해 사례

① 인터넷 기사 및 블로그 광고에 현혹된 피해 사례

· 30대 피해자 A씨는 '24.3월말 다수의 인터넷 기사에 "B업체"의 "부동산 아비트라지 거래"로 원금 보장과 함께 고수익(8시간마다 0.5% 수익)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접하였고, 블로그 등에도 해당 업체를 홍보하는 다수의 글을 접함

기사·블로그 등에 불법업자 홍보 콘텐츠 유포

· 여전히 의심스러웠으나, "B업체" 홈페이지에 접속하자 유명인의 광고,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 및 정식 온투업 등록회사라는 설명과 함께 원금보장 안내를 받고 안심하여 투자금을 이체

홈페이지를 보고 사기업체라고 의심하지 못함

· 이후 급한 일로 중도해지를 신청하자, 계약서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 90%를 공제후 10%만 환급받고,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나, 높은 수익률이 미심쩍어 금감원에 문의한 후 불법업자임을 뒤늦게 알고 좌절

일부 금액을 환급받아 피해사실을 인지 못함

② 유튜브 일반인의 투자후기 영상에 현혹된 사례

- 40대 피해자 C씨는 '24.4월초 우연히 “부동산 펀드”로 큰 수익을 얻었다는 일반인의 투자 후기 유튜브 영상’을 시청하고 “B업체”에 흥미를 갖게 되었음
- C씨는 초반에 의심을 가졌지만, 해당 투자후기 영상이 10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고, 수백 개의 긍정적인 댓글과 함께 해당 영상 뿐 아니라 일반인이 출연한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“브이로그 영상”도 있어 진짜 투자후기 영상이라고 판단
- 해당 일반인 출연영상 댓글에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링크가 있어 입장하였으며, 오픈채팅방에서 영상에 출연한 일반인(프로필상 사진으로 사칭 추정)이 “B업체”의 “부동산 펀드”에 투자하면 본인처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, “B업체” 홈페이지 사용방법을 상세히 안내
- “B업체”에 투자금을 이체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기재된 고객센터로 전화하였으나, 통화량이 많아 상담원 연결이 어렵다는 안내음만 흘러나왔고, 결국 해당 업체 홈페이지의 쪽지 기능을 통해 입금 안내를 받고 투자금을 이체
- 충분한 수익이 생겼다고 생각한 C씨는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, 6개월의 신탁기간을 유지해야만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안내를 받아 중도해지를 포기하였고, 뒤늦게 금감원에 문의한 후 불법업자임을 알고 좌절

일반인의 투자후기 영상을 배포

댓글 조작과 브이로그 영상으로 투자자의 안심 유도

일반인을 내세운 오픈채팅방에서 투자방법을 안내

온라인으로만 상담에 응대

중도해지를 포기하여 피해사실 인지가 지체

Ⅲ.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

① 원금·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업체는 유사수신을 의심하세요!

□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금·적금 등 제한적이며 투자성 상품이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원금 보장을 약정하는 경우 무조건 불법 유사수신을 의심

□ ‘고수익(High return)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(High risk)이 따른다’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

* 고수익·무위험의 확실한 투자처가 존재한다면 유사수신 업체 혼자 수익을 차지하려고 할 것이며, 절대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량의 홍보를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지 않을 것

② 온라인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접근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이므로 이에 절대 응하지 마세요!

- ☐ 유튜브, 블로그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 투자가 가능하다는 홍보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이므로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
- ☐ 불법 업체가 유선·대면 상담을 거부하며 홈페이지, 카카오톡 등 온라인로만 접촉하는 경우 손쉽게 잠적하고 투자금을 편취(일명 '먹튀')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

③ 유명인을 사칭한 광고나 일반인의 투자후기 영상에 속지 마세요!

- ☐ 유명인을 사칭하거나, 일반인의 실제 투자후기라며 고수익·원금보장 상품에 투자하라고 현혹하는 광고는 실제로는 이미지 조작이나, 재연 배우 등이 출연한 허위 투자 광고임에 유념

④ 정식 금융회사로 설명하더라도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!

- ☐ 해당 업자가 금융회사임을 주장하는 경우 “제도권 금융회사” 여부를 반드시 확인
* 금융소비자정보포털(www.fine.fss.or.kr)→금융회사 조회→제도권 금융회사 조회
- ☐ 최근 제도권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를 무단 도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정상 업체의 홈페이지로 보이더라도 절대 맹신하지 않도록 주의

⑤ 불법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하세요!

- ☐ 원금·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신속히 경찰(☎112)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*(☎1332→3)에 제보
* 금감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→민원.신고→불법금융신고센터→불법사금융·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 코너로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